

#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모색\*

## Seeking a Critical Paradig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장 덕 현(Duk-Hyun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1 의의            |
| 2. 비판적 패러다임의 의의와 영역 | 4. 2 지적 자유         |
| 2. 1 정의             | 4. 3 정보빈곤          |
| 2. 2 주요영역           | 4. 4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
| 3. 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 논쟁   | 5. 결론: 비판문헌정보학의 지향 |
| 4. 지식의 정치학          |                    |

### 초 록

문헌정보학은 지식의 생산, 관리, 운용에 관한 탐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연구들이 주로 지식과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문제에 집중하는 기능주의적 지향성을 유지해 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문헌정보학이 지식과 정보의 기술적, 조작적 측면을 중시하고 광범한 컨텍스트로서의 사회과학적 접근은 결여한 결과 지식과 관련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슈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지향성의 부족이라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글은 지식의 생산, 유통의 체계에 개입하는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의 문제들 가운데 비판적 인식이 필요한 영역들을 일별해 봄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지향과 적용 가능성을 기늬한다.

### ABSTRAC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LIS) research has been dominated by functionalistic orientation as one of the postulates of positivism. As a result, it has often been criticized that LIS resear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s on which the theories and the practices of LIS are based. In this regard, this paper seeks to establish and apply critical inquiry through a review of the relevant aspects of critical theory and application of those insights to current research and practice in LIS. Connections of LIS research to releva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are particularly stressed.

키워드: 비판이론, 문헌정보학연구, 사회정보론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추계학술발표회(2002. 10. 11-12)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논문접수일자 2002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2월 3일

## 1. 서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개인과 사회 집단들에게 어떠한 동질적 특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계급적 경험들과 그러한 경험을 소유한 존재들을 “구별짓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의 방향성을 지니고 진행되는 이러한 시도들은 사람들의 신념을 지배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작용한다. 이렇게 구축된 사회적 상징체계는 이른바 신화(myth)와 생활방식(ways of life)을 창조함으로써 상징적 권력(symbolic power)을 형성하고 그러한 권력의 사회적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sup>1)</sup> 단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시대적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원의 속성과 배경이 너무나도 다양한 특정의 사회집단을 이른바 \*\*\*세대라고 동일화한다거나, 방송광고를 통해서 “디지털(digital)”을 “돼지털”로 알아듣는 사람들(주로 저소득층, 노인 등)을 애써 부각시키고 상대적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운용능력이 이미 생활방식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신화적 신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 등에서 우리는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라는 개념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기제들과 무관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점점 노골적으로 사회의 전면을 지배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을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단계의 하

나로 보는 연속론자(continuist)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생활방식의 차원을 구성하면서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방송광고의 예에서 보듯이, 이를테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지식, 정보의 운용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생존의 조건이 된다는 논리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이제 정보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평화와, 교육의 발전, 민주주의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진부하기까지 하다.<sup>2)</sup>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지식은 사회의 구석 구석 필요한 곳마다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골고루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식이 사회의 지배적 권력에 의하여 통제되고 또 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 또한 적지 않다. 주로 푸코(Foucault)와 그의 견해를 수용하는 인문, 사회과학자들에 의하여 개념화되고 발전된 이러한 관점은 지식의 체계를 보이지 않는 권력중심(power center)에 의하여 통제되는 체계로 파악한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평하게 퍼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급에 의하여 통제되고 점유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 이슈들은 이미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1)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 Dan Schiller, *Digital Capitalism: Networking the Global Market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2000.

현상과 관련문제들을 해석하고 이에 천착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존재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지식의 생산, 축적, 관리, 운용에 관한 탐구를 학문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 100여 년 동안을 거쳐오는 동안 학문의 양적, 질적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세부분야별 연구성과들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능주의적 지향성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다. 말하자면,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들이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기술적, 조각적 측면에 집중한 나머지, 보다 광범한 컨텍스트로서의 사회과학적 접근은 결여하였으며 그 결과 지식/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이들을 배경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지향성의 결핍은 문헌정보학 담론에 있어서 비판적 감수성(critical sensibility)의 존재, 즉 문헌정보학 연구들이 문헌정보학의 해석과 실천을 필요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배태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의 비판적 감수성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의 생산과정과 유통의 체제에 개입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들과 이

러한 문제에 천착하는 관련 사회과학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헌정보학의 문제들 가운데 비판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을 일별하여 봄으로써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critical paradigm)의 지향과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비판적 패러다임의 의의와 영역

### 2.1 정의

비판적 패러다임(critical paradigm)에서 “비판(critical)”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사회, 정치적 상황이나 지식 생산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다른 주류 이론과 구별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sup>3)</sup> 구체적으로는 연구자가 이론적 기제를 통하여 사회의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적 실천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비판적 패러다임에 속하는 연구 주제가 이론적, 학술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연구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고민의 반영이 기도 하기 때문이다.<sup>4)</sup>

이러한 비판적 패러다임은 알려진 바와 같이 1930년대(실제 그 성과에 주목한 것은 70년대 후반) 아도르노, 마르쿠제, 호르크하이머 등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판이론은 세계 제 1차 대전과 제 2차 대전의 와중에서 이

3) 임영호. “한국언론학에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한국방송학보』, 15(2001): 351.

4) 임영호. 343.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과 실천을 통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명칭으로, 여기에는 실제적인 연구와,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의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좁은 의미로 말할 때의 비판이론이 이들의 이론과 연구활동에 국한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과학에서 비판이론이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비판이론을 적용하고 연구하는 분야들 또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이르러 광범하게 퍼져 “진리(truth)”와 정치적 참여의 문제 등을 논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칼혼(Carlhoun)에 따르면 비판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이해와 분석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비판적 인식을 생산하고 있다.<sup>5)</sup> 우선, 이론가 또는 연구자가 현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비판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특정의 문제에 대한 현재의 방안들이 모든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하에 부단히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행동을 위한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사회를 사회운동(social movement)에 기초하여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자의 지적 활동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개인적, 사회적 의식을 형성해 나가며 역

사적 특수성을 견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떠한 연구자의 이론적 지향을 형성하는 이론적 반영(reflection)과 조건화(conditioning)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자의 관점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식들과 이러한 인식들이 형성되게 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판적인 재검증 작업이다. 이것은 특정의 역사적 조건과 상황에서 특정의 문제가 의의와 중요성을 지니게 되며 이러한 지적 상황과 문제가 어떠한 경우에 경험과 실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를 보는 여타의 관점과 맞서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른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것 뿐 아니라 맹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밝히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작업이 병행되며, 현재와 과거의 다른 모든 이론들의 생성 배경과 조건을 분석해 내는 작업도 포함된다.

## 2. 2 주요영역

최근 들어 비판적 관점과 인식의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 산물과 그 생산과 소비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적 분석을 가하는 종합적 연구분야로서의 이른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영역을 들 수 있다.<sup>6)</sup>

비판적 관점이 문화에 대한 연구와 결합하게 된 것은,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대중문화가 새로운 관

5) Craig Calhoun. *Critical Social Theory: Culture,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Difference*. Oxford, UK: Blackwell, 1995: 35-6.

6) Michael Green. "Cultural Studies," *A Dictionary of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ed. Michael Payne. Oxford, UK: Blackwell, 1996: 124.

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세계체제 내에서의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노골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 등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화연구는 애초에는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과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유래되었으나, 최근의 경향은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권력(power)의 문제와 연결하여 여성문제, 인종문제 등의 사회의 저변에 대한 접근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즉, 지식과 권력의 결합 양상이 그들의 문화에 미치는 사회과학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데까지 연구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는 문화와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문화의 속성과 역사적 특수성에 관한 문제 등으로, 영역에 관계없이 문화의 형성구조 속에서 관찰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특히 최근 들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연구란 결국 하나의 특정분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문화인류학 뿐 아니라, 역사학, 신문방송학, 문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각기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문화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7)</sup> 여기에 비판적 패러다임이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규정하는 주된 인식론이자,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문화연구의 개념

이 결국 예전에 “비판이론”이라고 칭해지던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보기도 한다.<sup>8)</sup>

문화연구의 대상은 문화이며, 이 개념은 주로 그람시(Gramsci)의 관점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 핵심은 한마디로 문화를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사실의 구축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영역으로서의 문화연구란 담론, 헤게모니, 권력,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서의 문화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성(specificity)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 연구분야라고 볼 수 있다. 특정의 집단이 유지하고 있는 문화적 표준(standards)은 권력과 결합되어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주도적인 문화가 아닌 여타의 문화를 평가하는 지표를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의 행위나 장치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사회의 다른 문화적 측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이다.

“문화”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이미 낯선 개념이 아니다, 다만 문헌정보학 연구가 다루어온 “문화”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본연의 정의에서 유리된 “지적, 예술적 활동과 그 결과”<sup>9)</sup>라고 하는 단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의 개념과 함께 해 왔으며, 문헌정보학 또한 사회적 기억의 집적체인 문화적 장치로서의 도서관과 그 운용자로서의

7)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Media, Culture and Society*, 2(1980): 57-82.

8) L. Grossberg, “The Circulation of Cultural Studies,” *Cultur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6(1989): 413.

9)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87.

사서를 중심에 두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sup>10)</sup>

그러나 비록 문화에 대한 정의와 인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문헌정보학의 연구와 실천의 핵심 영역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들은 적지 않다.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의 초창기인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적극적인 문화창달의 원리와 체계 및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sup>11)</sup>으로서의 문헌정보학(도서관학)의 성격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많은 문헌을 통해서 “도서관문화”라든지 “정보문화,” 혹은 “독서문화” 등의 표현들이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는 “문화”관광부가 공공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는 예에서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문화 개념의 중요성은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장치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소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헌정보학의 영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새로운 방향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3. 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 논쟁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비판적 인식에 입각한

문제제기와 학술적 관심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렇듯 최근까지도 주류 학술 담론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하나의 패러다임이 학술적 지식추구의 한 유형으로서 주류 패러다임 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내부에서 관찰되는 패러다임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paradigm)은 이를테면 “지식인 지도”이다. 특별히 인문, 사회과학에 있어서 패러다임은 지식의 정의와 그 생산의 본질적 매커니즘을 구성하는 장치로서, 제도화되고 당연시되는 가설과 가치와 현상들의 총합체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특정의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식의 체계는 그 사회의 지적 작업을 규정하는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특정의 언어나 개념 또는 신념체계를 생산하는 지적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경험적 영역으로서, 특정의 이론이나 방법론과 같은 지식이 지배적 패러다임을 통하여 정당화되고 그렇지 못한 지식은 수용되지 못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문헌정보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기능과 이론의 비중을 둘러싼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문헌정보

10) “Access Point Library: Media-Information-Culture,” Theme,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2003. Berlin, Germany.

11) 정필모. “문화창달을 위한 조건조성론: 도서관과 도서관학,” 『도협월보』, 8(1964): 3-6.

학 연구에 있어서의 지배적 관점은 이른바 기능중심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핵심은 문헌정보학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전문직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논의는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데이터의 의미에 집중하며 수량화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중심주의적 관점은 학문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판과 회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1920년대 시카고대학교의 도서관학대학원(GLS: Graduate Library School) 설립 이후 과학성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sup>12)</sup>

해리스(Harris)는 도서관학(librarianship)이 처음 대학의 교과로서 등장한 듀우이(Dewey)의 컬럼비아대학교의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y Economy)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이미 실무지향의 신념체계가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초기의 관점이 상당기간 동안 도서관학 연구의 전반을 지배하였으며, 이후 <윌리엄슨 보고서: *Training for Library Service: 1923*>의 출간에 이르러 사서가 단순 사무직이 아닌 전문직이며, 따라서 이론과 원칙

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카네기재단에 이러한 연구보고가 수용될 시기까지 도서관학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한다.<sup>13)</sup>

그런데, 이 시기는 미국의 대학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문학과 순수과학만이 대학교과로 수용되던 입장으로부터 법학, 의학 이외에 도서관학, 간호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전문직 영역(professional disciplines)의 학과들이 설립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대하여 이러한 학문분야들이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대학이 “타자”나 “속기”같은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플렉스너(Flexner)는 도서관학과 같은 직업훈련과정들이 대학에 개설됨으로써 대학 본연의 지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도서관 업무교육(library training)이 과연 대학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학의 이상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도서관학과와 같은 과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sup>14)</sup>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문헌정보학의 성립 초기에 부딪혀야 했던 이러한 주장들이 현재까지도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문헌정

12) 도서관학이 그 성립 초기에 학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취했던 과학주의 노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과학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현상이 이후 학문의 영역을 왜소하게 만드는 경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001): 273).

13) Michael H. Harris, “The Dialectic of Defeat: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Library Trends* 34(1986): 515.

14) Abraham Flexner, *Universities: American, English, Ger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172.

보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노정하고 있는 기능중심주의, 실무지향성, 편협성 등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하여 대단히 잘 알려진 연구서인 스티이그(Margaret F. Stieg)의 <문헌정보학교육에 있어서의 변화와 도전: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에 나타난 기능주의적 지향에 대한 버클랜드(Michael K. Buckland)의 전면적인 비판의 예에 잘 나타나 있다.

스티이그에 따르면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현장에서 효과적인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professional)을 양성하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목적이나 방향성의 설정, 그리고 커리큘럼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현재 도서관 현장의 전문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전문적 세계의 관점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인증제도(creditation)라고 보는데, 즉, 인증 제도는 결국 도서관현장을 대변하는 전문적 단체의 요구와 지향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범주를 사용하여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함으로써, 고용자로서의 전문적 세계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된 교육체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공식화, 합리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스티이그는 정보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전문적 교육기관(professional

school)으로서의 문헌정보학과는 결국 그들의 졸업생들이 형성하는 직업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수요와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반면 이러한 스티이그의 주장에 대하여 버클랜드는 스티이그의 주장은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또한 근시안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스티이그가 주장하는 문헌정보학은 단지 실무에 능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뿐이며, 기능주의적 관점 이외의 입장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버클랜드는 지금까지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사서의 기능적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어 도서관과 지식/정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을 간과하였으며, 정보를 매개로 하는 사회 현상을 수량화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지식과 정보가 현실의 다양한 맥락과 분리되어 마치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기능주의적 연구는 결국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합리화하고 지식과 정보에 내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버클랜드는 단지 전문직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학문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기술, 사회, 지식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기법만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 전반으로부터 다양한 기법들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은 언어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 관점을 강화함으

15) Margaret Stieg,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ALA, 1992



로써 실무적 전략이나 노하우만이 아닌 학문 스스로에 내재하는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러한 기능중심주의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대체로 비판적 패러다임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 위겐드(Wiegand)의 관찰에 의하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비판이론을 기반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분석방법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생산, 조직, 분배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는데 적용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연구의 경향에서의 지식/정보는 고립된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 정치적 제도 및 지배적 문화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사회구성원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든지, 대중매체나 출판 등의 영역이 이데올로기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도서관의 장서가 가치를 배제한 상태로 구성되고 서비스 또한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등의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sup>18)</sup>

해리스는 이러한 가설들을 다원주의와 과학주의의 환상(dream of a physics of libra-

rianship)의 결과로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보다 본질적인 사회적 갈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권력의 분배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의 문제에 노정된 불공정성과 계급 갈등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리스는 대안으로서 문헌정보학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화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회의 주류문화가 형성되는 과정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에 대하여 위겐드는 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는 신문방송학(communication studies)과 같은 인접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경향을 자세히 관찰하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헌정보학의 관심은 지나치게 편협(tunnel vision)하다고 주장하며, 문헌정보학 담론이 푸코, 그람시, 하버마스(Habermas) 등의 비판이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이제까지 문헌정보학이 다루지 않았던 지식과 권력, 문화와 불평등, 인간해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이러한 관점은 래드포드(G. Radford)와 래드포드(M. Radford)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들은 특정의 담론이 사

16) Michael K. Buckland. "The Academic Herita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ALISE(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nual Conference Opening Plenary Session/ 2000. 1. 11. San Antonio, Texas.

17) Wayne A. Wiegand. "Tunnel Vision and Blind Spots: What the Past Tells US about the Present: Reflections on the Twentieth-Century History of American Librarianship." *Library Quarterly*. 69(1999): 25.

18) Michael H. Harris. "State, Class, and Cultural Reproduction: Toward a Theory of Library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Wesley Simonton, 14(1986): 215-6.

19) Harris: 237.

20) Wiegand. 23.

회적으로 존중되는 반면 여타의 담론은 사회의 구석으로 몰아내는 전략으로서의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파헤친 푸코의 이론이 문헌정보학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여러 문제들이 이러한 지적 기반 위에서 논의되고 분석되는 예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래드포드(G. Radford)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자와 사서들의 지식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객관적 방식으로 저장되고 분류, 배열될 수 있는 객관적 물체로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협소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sup>21)</sup> 이러한 논의는 자성적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은 문헌정보학자들과 사서들이 사회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문헌정보학 담론에 있어서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사서들의 직업세계를 구성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숨기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 역동적인 이미지, 그리 희망적인 미래들만을 사회에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한다.<sup>22)</sup>

부시먼(Buschman)과 카본(Carbone)은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비판적 접근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서 찾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정보기술의 발전

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분배와 관련된 이슈가 표면화되고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었으며, 따라서 관련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교육사회학(sociology of education)의 논리와 연구방법이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확산 문제에 접근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sup>23)</sup>

이러한 입장들은 주로 지식정보사회의 진행과 함께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과 이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격차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의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사서의 정치적 역할에 관련되는 논의들이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는 배경도 있다.<sup>24)</sup>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현재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효율성과 효과에만 집중하는 관점은 한계를 지니며, 문헌정보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지식과 정보는 사회와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정보현상을 매개로 한 실천과 이론 속에서 언어와 담론과 텍스트가 어떻게 구축되고 소비되는가 하는 점을 연구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21) Gary P. Radford. "Positivism, Foucault, and the Fantasia of the Library: Connections of Knowledge and the Modern Library Experience." *Library Quarterly* 62(1992): 408-24.

22) Gary P. Radford and Marie L. Radford. "Libraries, Librarians, and the Discourse of Fear." *Library Quarterly* 71(2001): 319

23) John Buschman and Michael Carbone. "A Critical Inquiry into Librarianship: Applications of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Library Quarterly* 61(1991): 15-40.

24) Henry T. Blanke.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Library Journal*, 114(1989): 41.

## 4. 지식의 정치학(Politics of Knowledge)

### 4.1 의의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요 대상은 “지식”이다. 지식은 그것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환경에 의해 조건화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는 지식을 매개로 하며, 지식은 권력과의 결합을 통하여 지배적 권위를 획득한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문화적 기제는 권력과 결합된 지식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조작된 장치들이다.<sup>25)</sup> 문화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체계이므로 사회에서 지식이 담당하는 역할은 지식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보다 광범한 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문제에 천착하는 문헌정보학이 문화현상의 일부분으로서 지식과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미있는 일일 뿐 아니라 사서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의 직업세계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동일한 하나의 직업군(profession)이라는 것도 그들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지식의 집합체로서 파악되며, 따라서 지식의 공유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담론(discourse)을 통하여 권력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담론은 현재 다양한 학

문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논증적 언어, 즉 제도적 권력(power)을 매개로 한 심도 있는 언술행위(serious speech act)로서, 결국 어떠한 특정 영역의 사회적 지식과 행위를 특정의 관점에 입각하여 의미 있게 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로서의 담론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일상적 담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언술행위를 포괄하는 다양한 범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담론은 주로 제도적으로 일정한 상징적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언술행위로서 일정한 권위를 지닌 텍스트의 형태로 존재한다.<sup>26)</sup> 푸코는 특정의 구성원칙에 따라 형성된 언어적 집합체를 담론이라고 정의한다. 그러한 담론은 단순히 생각하는 방식이나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 구조를 함축하는 언술행위로서 그 자체가 권력화된 이데올로기적 양식으로 인식된다.

담론은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그리고 담론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자리매김(positionality)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sup>27)</sup> 담론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따라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계급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언어 및 기호의 양태를 띠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담론은 다양한 층의 사회적 관계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문화현상에 접근한다는

25)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NY: Pantheon Books, 1980.

26) Hubert L Dreyfus and Paul Rainb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48.

27)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2.

것은 문화현상을 담고 있는 담론의 심층 구조를 통해 특정의 사회에서 특정의 지식체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가는지 파악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주류의 지식이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분석에 있어서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지식의 구조적 특징과 그 수용의 맥락이 연구의 대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는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를 밝힌 푸코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사용방식이 다른 사회적, 문화적 행위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권력'으로 작용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서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역사를 비판하면서, 특정의 지식은 허용하고 여타의 지식은 거부하는 개념적 틀로서의 언술적 형식(discursive formation)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즉, 권력과 결합된 지식은 사회 내에서 어떠한 특정의 주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수반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합하지 않는 존재를 제외시키거나 다른 언술을 침묵시킴으로서 사회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의 체계(system of exclusion)는 교육, 출판, 도서관, 학술단체와 같은 지식을 매개로 하는 사회 제도가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기반을

공고하게 한다고 한다.<sup>28)</sup> 결국, 그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지식을 중시하기보다는 삶과 현실자체를 중시하고 거시적인 이론 체계 속에 배제되어 있거나 가려있는 "미시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지식생산의 주체로서의 학문연구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람시의 지식인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이란, 인간의식, 관념, 사상 등의 상부구조 영역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사회의 지식을 축적하여 지식인화한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급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부구조가 형성될 때에는 그들 나름의 지식인 계급이 생산되며, 이들을 전통적 지식인에 의하여 구축된 사회의 지배적 관점에 대항하여 저항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는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이라 칭한다. 그러한 유기적 지식인은 저항의 의식을 대변하면서도 다른 계급의 이익을 포괄할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 저항 이데올로기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유기적 지식인들의 대항 담론이 학문의 사회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 4. 2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

정보화의 진행과 함께 민주사회를 정의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과 정보는 사

28) Michel Foucault.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1972: 219.

회의 공적 자원(public resource)으로 여겨져 왔으며, 사서들은 지식추구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료 도서관서비스를 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sup>29)</sup>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은 공적인 자원이 아닌 상품으로서, 시장(market)에서 적정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입수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기능의 확대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제공하는 일로 자본을 획득하는 이른바 지식/정보산업의 비중 또한 증대하며, “이용자”보다는 “소비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의 구조와 문화의 부문영역이므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부유층(information-rich)과 정보빈곤층(information-poor) 사이의 갈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의 희소성을 높이려는 시도 등과 같은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 분배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의 공공성을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학문이 존재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지식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은 정보의 흐름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의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식과 정보를 획득

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도서관의 역할은 이러한 민주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는 언제나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비롯된다.<sup>30)</sup>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선전하며 정보정의(information justice)의 중요성을 전파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운동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하여, 정보의 사유화, 독점화에 반대하여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sup>31)</sup> 블랭키(Blanke)는 도서관인들이 정보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략과,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공적자원으로서의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sup>32)</sup>

#### 4. 3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지식정보화가 진행되고, 정보기술의 이기들이 보편화될수록,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의 박탈감 또한 증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29) Sandy Iverson. "Librarianship and Resistance," *Progressive Librarian*, 15(1998/99): 2.

30) Lester Asheim. "Librarians as Professionals," *Library Trends*, 26(1978): 253.

31) William F. Birdsall.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and Social Change." *Library Journal*, 107(1982): 226.

32) Henry T. Blanke.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Library Journal*, 114(1989): 41.

는 사회적 장치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빈곤 계층 또한 그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름의 정보추구와 입수의 채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문적 관점에서 이러한 영역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소외 계층의 사람들 또한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이용하여야 할 공적 정보서비스의 혜택에서 벗어나 주로 자신들 주변에 존재하는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 정보체계(public information systems)의 접근범위 내에 존재하며, 현재 활동적인 이용성향을 보이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1980년대 이후 정보서비스의 지향이 시스템으로부터 이용자를 중심에 둔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잠재적 이용자, 즉 현재는 공적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으나, 개발 여부에 따라서 이용자로 개발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특히 최근에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보요구와 이용에 관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헌인 더빈(Dervin)과 nil란(Nilan)의 논문<sup>33)</sup>에서 정보는 결국 하나의 주관적 산물

일 뿐이며, 따라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정보 그 자체의 가치나 성격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특정한 환경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구성된 필요의 반영이라는 점을 밝힌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본다. 아울러 그들은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시각을 정보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그리고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요구의 주관성 때문에 개인은 주로 가까이 존재하는 정보를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사회적 주변부(periphery)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소외는 예외 없이 정보의 흐름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빈곤계층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란 소량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입수된 정보는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그러나 더빈과 nil란이 제기한 이러한 사회과학적 문제들은 문헌정보학에서는 한동안 수용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비교적 최근 들어서 정보이용과 봉사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의 이용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리고 사회적 소외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4)</sup>

33) Brenda Dervin and Michael Nilan. "Information Needs and Us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1(1986): 3-33.

정보 사회의 진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접근 수단을 확보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층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은 주로 농어촌거주자나 도시빈민의 경우에 집중되고 있어 정치, 경제적 측면의 권력집중의 구조가 정보를 매개로 재생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sup>34)</sup> 문헌정보학은 사회의 일부구성원들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원인을 커뮤니티 전체를 관통하는 정보부족(un-information)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정보학의 과제는 소외된 삶에 있어서 과연 정보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입수하는 정보는 충분하고 정확한지,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떠한 종류의 정보인지, 그리고 그들을 사회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공적 정보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될 것이다.

#### 4. 4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현대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화적 기제는 다름 아닌 “디지털”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이른바 디지털 문명은 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인간 생활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설

명과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문명이 도서관이라는 문화적 장치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개인과 집단이 정보를 운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생활의 양식을 변화시킨다면 이에 대한 비판과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의 몫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정보의 상품화와 정보 산업의 발달은 공적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유통을 담당해온 도서관 기능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정보기술의 성격과 발전의 양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버즈올(Birdsall)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문헌정보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도서관환경을 지배하는 요소로서의 정치경제학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즉, 도서관도 정치적 과정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도서관서비스에 관련된 정치경제학적 이슈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정보기술의 이데올로기화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버즈올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윈터(Winter)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발전이 사서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근거없는 기대에 불과하다. 그는 정보기술에 의해서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도서관 업무가 자동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실제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이 감축되는 등의

34)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NTIA, 2001.

35) Oscar Gandy. *The Panoptic Sort: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Boulder, CO: Westview, 1993.

예를 들면서, 컴퓨터가 사서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정체성과 서비스의 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사서직의 비전문직화(de-professionalization)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볼 때 지식정보사회에서 전통적인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주변부로 밀려나 버리고, 그 자리를 사적영역(private sector), 특히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 그들의 구매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관건으로 삼는 전자정보 시장의 개념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상품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정보경제의 동력을 이끄는 거대 자본과 그 배후에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소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편의를 제공하는 정부의 영향력이라 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료의, 공평한 정보접근은 단지 상업적 정보서비스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 뿐이다.

정보기술의 영향력이 하나의 거대한 학문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여타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정보기술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sup>37)</sup> 문헌정보학자와 사서

들이 운동가(activist)적 관점을 견지하고 정보기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동에 개념적 이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기술 담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실재를 구축하고 사회적 신념체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sup>38)</sup> 버즈올은 이러한 맥락에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지해야 할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은 정보사회, 정보기술과 같은 대중적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단순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가하여야 한다. 둘째, 하나의 세부 분야로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은 사회적 문화적 일상을 포괄하는 사회적 총체성(totality)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학자들과 사서들은 시민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지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하는 사서직의 본래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정보관리자(information manager)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점만을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은 도덕적, 철학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가능한 한 사상적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

36) Michael Winter. *The Culture and Control of Expertise*. Westport, CT: Greenwood, 1988: 51

37) Vincent Mosco.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London: Sage, 1996.

38) Bernd Frohmann. "The Social and Discursive Construc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http://instruct.uwo.ca/faculty/Frohmann/wired.html#Abstract>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으며, 특정의 정치적 사상적 장치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노력해 왔다.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이 그 중요한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의 도덕적 가치로 무장하고 지식의 생산, 분배, 접근이 상업적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실천(praxis), 즉 현실 세계에서 몸소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특징은 이론과 실천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병행된다는 것이다.<sup>39)</sup>

## 5. 결론: 비판 문헌정보학의 지향

우리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도 지식과 정보가 지니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의의와 그 생산, 유통, 축적의 과정을 비판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해석하는 비판적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적 패러다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지향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지식과 정보의 속성을 본질적 차원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이는 지식의 본연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식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을 파악하고 이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들과 입장들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식의 대상을 규명해야 한다. 모든 지식은 사물에 대한 담론적 표현방식이며, 결국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

이다. 지식의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지식이 사회의 어떠한 대상과 더 깊이 관계 맺고 있고, 어떤 대상과의 연결고리는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 규칙성은 어떠한가, 지식이 널리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대상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떠한 대상에 관한 지식은 통제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 효과적 관리를 지향하던 측면으로부터 내용 지향적(content oriented)인 측면으로의 관심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지식의 생산 주체와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주체란 사회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자리매김(positionality)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내에서 지식을 도구로 하여 특정의 사회적 위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양상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판이론의 기본적인 입장들과 주요 쟁점, 그리고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그 시사점 등을 살펴해보았다. 한편으로는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식/정보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비판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이 조금씩 발견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관점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문헌정보학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고, 그 사회과학적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도 주류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여타 사회과

39) William F. Birdsall "A Political Economy of Librarianship?" *Progressive Librarian*, 18(2001): 1-8.

학 분야의 움직임과, 이들을 중심으로 차츰 수용의 폭을 넓어지고 있는 비판적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족한 비판사회복지학회(가칭)의 경우 그 창립선언문에서, 첫째, 수입이론이 아닌 한국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 독자적 이론 구축을 통한 자주성 확보;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성의 정립; 셋째, 인접 사회과학 분야와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개방성 확보; 넷째, 학문적 접근의 엄밀성 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쟁점화 해 온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성 강화의 다섯 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성의 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 사회복지학이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의 사회복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변화에 대응하여 과연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학계는 학문적 자주성, 엄밀성, 실천성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서 사회복지연구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을 업으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자성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sup>40)</sup>

나는 우연히 이 창립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사회복지”를 “문헌정보”로 바꾸어 놓는다는 엉뚱한 상상을 해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구들이 여전히 매우 의미심장한 주

장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과연 문헌정보학연구자들이 위의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는 이번 학기 초에 내가 담당한〈문헌정보학사〉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느끼는 문헌정보학”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이 클래스는 1997학년부터 2000학년까지의 문헌정보학과 3, 4학년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지 생각할 여유를 두지 않고 수업시간 몇 분 동안에 써낸 글들이라, 치밀한 논리나 깊이 있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학문의 후속세대들이 써낸 몇 줄 되지 않는 글 속에 나타난 고민들의 무게가 여전히 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작업은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기 위한 시도에 다름 아니다.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이것이 학문인지... 너 무나도 현실적이다 못해 학문의 깊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sup>41)</sup>

3학년이 되고 보니 가끔 드는 생각이 과연 이 학문(솔직히 학문이라고 규정짓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을 전문대에서 배우는 것과 4년제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sup>42)</sup>

옛날 담임선생님 말씀이 생각난다. “문정과 가면 대학공부는 쉬울거야...”<sup>43)</sup>

40) 비판사회복지학회창립선언문: 2001.10.27.

41) K(문헌정보학과 4학년)

42) I(문헌정보학과 3학년)

43) K(문헌정보학과 3학년)

## 참 고 문 헌

- 임영호 “한국 언론학에서 비판적 패러다임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한국방송학보』, 15(2001).
- 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응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001).
- 정필모 “문화창달을 위한 조건조성론: 도서관과 도서관학,” 『도협월보』, 8(1964).
- 다이안 맥도넬,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2.
- Asheim, Lester. “Librarians as Professionals.” *Library Trends*, 26(1978).
- Birdsall, William F. “A Political Economy of Librarianship?” *Progressive Librarian*, 18(2001):1-8
- Birdsall, William F. “Librarianship, Professionalism and Social Change.” *Library Journal*, 107(1982).
- Blanke, Henry T.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Library Journal*, 114(1989).
-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Buckland, Michael K. “The Academic Herita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2000 ALISE Annual Conference Opening Plenary Session.
- Buschman, John and Michael Carbone. “A Critical Inquiry into Librarianship: Applications of 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Library Quarterly*. 61(1991): 15-40.
- Calhoun, Craig. *Critical Social Theory: Culture, History, and the Challenge of Difference*. Oxford, UK: Blackwell, 1995.
- Dervin, Brenda and Michael Nilan. “Information Needs and User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1(1986): 3-33.
- Dreyfus, Hubert L. and Paul Rainbow.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 Flexner, Abraham. *Universities: American, English, Germ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 Foucault, Michel.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1972.
-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New York, NY: Pantheon Books, 1980.
- Frohmann, Bernd. “The Social and Discursive Construc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 <<http://instruct.uwo.ca/faculty/Frohmann/wired.html#Abstract>>
- Gandy, Oscar. *The Panoptic Sort: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Boulder, CO: Westview, 1993.
- Green, Michael. "Cultural Studies," *A Dictionary of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ed. Michael Payne. Oxford, UK: Blackwell, 1996: 124.
- Grossberg, L. "The Circulation of Cultural Studies," *Cultur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6(1989).
- Hall, Stuart.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Media, Culture and Society*. 2(1980): 57-82.
- Harris, Michael H. "State, Class, and Cultural Reproduction: Toward a Theory of Library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Advances in Librarianship*. ed. Wesley Simonton ed. 14(1986): 211-252.
- Harris, Michael H. "The Dialectic of Defeat: Antinomies in Research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Trends*. 34(1986).
- Iverson, Sandy. "Librarianship and Resistance," *Progressive Librarian*. 15 (1998/99): 2.
- Mosco, Vincent.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London: Sage, 1996.
- NTIA US Department of Commerce.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NTIA, 2001.
- Radford, Gary P. "Positivism, Foucault, and the Fantasia of the Library: Connections of Knowledge and the Modern Library Experience." *Library Quarterly* 62(1992): 408-24.
- Radford, Gary P. and Marie L. Radford. "Libraries, Librarians, and the Discourse of Fear." *Library Quarterly* 71(2001): 299-329.
- Schiller, Dan. *Digital Capitalism: Networking the Global Market System*.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Stieg, Magaret.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ALA, 1992
- Wiegand, Wayne A. "Tunnel Vision and Blind Spots: What the Past Tells Us about the Present: Reflections on the Twentieth-Century History of American Librarianship." *Library Quarterly*. 69(1999).
- Williams, Raymond.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Winter, Michael. *The Culture and Control of Expertise*. Westport, CT: Greenwood, 1988.